

“다윗의 열등의식”

사무엘상 18:6-9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하루 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궁중악사로 왕궁을 출입한 적이 있었지만, 그는 사실 그리 주목받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 뜨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온 백성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삼상 18:6-7)

사울도 인간인지라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큰 칭찬을 듣고 주목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생기고 불쾌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칭찬을 들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셔' 라고 인정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가 굳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야 하며, 또 그 역사가 정녕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를 도와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자, 마음이 상했고, 그 상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있다가 결국 영혼이 병들고 맙니다.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삼상 18:9)

여기서 주목하였다는 것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행동을 계속 지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가 마음의 병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발작증세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 없이 떠돌아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삼상 18:10-11)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남으로 인해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발작을 핑계로 다윗에게 창을 던져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으로 뜨겁게 불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매일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가 생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still burning?”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삼상 18:17)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문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 기회가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삼상 18:23)

다윗의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겸손해 보이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말을 사울 앞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왕 앞에서 자기를 비하시키며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노라며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에 본인의 신분상승을 본인이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급한 마음은 다윗안에 있던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비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완벽한 출세를 보장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도 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건, 왕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한번 신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울은 작은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삼상 18:21)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아무런 신부 대금을 받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표피(껍질) 100 개를 원한다는 말을 흘립니다. 이것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다시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 명을 죽여서 그 표피를 사울왕에게 바치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작은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사위가 되기 위해, 또 그 사람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 다윗은 그토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다윗안에 자리잡고 있었던 열등의식이 결국 욕심을 낳게 되었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의지하고 믿을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합력이란 말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우러져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성공만이 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결과적으로 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우러져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열등의식으로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가지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놓으십니다.

사람 덕 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런 성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열등의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며, 열등감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면, 혹시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열등감이 있다면,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
2.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 인생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방법(대상)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이 끝나고, '우리가 사람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놓으신다' 는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합니다.